

혁신도시 '생활 쓰레기 연료' 커지는 갈등

해법없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

나주열병합발전소의 정상 가동을 위한 공론화 추진 주체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난방이 필요한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발전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난방비 증가는 물론 최악의 경우 난방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민대책위 "유해 화학물질 배출... 오염·건강 우려" 전남도 공론화 주도 거절 "중앙정부가 맡는 게 타당"

◆전남도, 공론화 추진 주체 거절

나주 SRF(가연성폐기물) 열병합발전소는 지난해 9월부터 광주시 생활 쓰레기로 만들어진 SRF를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반입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 현재까지도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는 지난 6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열병합발전소 갈등을 해결하기로 합의, 전남도에 공론화 추진 주체가 되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의 관계가 이해 당사자인 터라 공론화 과정을 객관적으로 주도할 수 없고 전남의 6개 시·군의 생활폐기물 처리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이다.

또 전남도가 공론화 주체가 된다면 나주시가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지역주민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전남도는 사실상 거절했다.

전남도는 열병합발전소에 광주권 SRF가 반입되고 있기 때문에 광역단체간 조정과 협의가 요구된다며 공론화 주도는 중앙정부(산입부)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입장은 지난달 13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나주열병합발전소 가동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의 면담에서 "나주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 위원회 설치 논의가 없는 일"이라며 재차 확인했다.

◆소송과 감사로 악화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은 커지고 있다.

발전소가동을 반대하는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반대 집회를 1년여 동안 지속하고 있다. 범대위는 나주시역 이외의 SRF 반입 반대, SRF의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액화천연가스(LNG) 100% 사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나주열병합발전소 정상 가동을 위한 공론화 추진 주체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발전소 가동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범 시민대책위원회.

범대위는 또 지난달 "나주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면 각종 유해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역주민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했다.

한난은 1일 444t으로 계획된 SRF 사용 연료를 30% 감축, 광주지역 SRF반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수요처' 확보 등을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난은 이와 함께 열병합발전소가 가동이 되지 못하고 있는 터라 올해 초 나주시를 상

대로 3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낸데 이어 추가적인 소송까지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가고 있어서다.

나주시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한난이 가져가기로 했던 광주시 생활폐기물을 못들여오자 광주시가 연간 180억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난에 제기한 것이다. 한난은 불가항력(발전소 미가

동)에 따른 것이니 물어줄 수 없다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패소할 경우 나주시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의 시작은 회신 공문

문제는 1일 440t(5t 트럭 기준 88대 분량)에 달하는 광주권 SRF 반입 여부를 묻는 의사 결정을 공문이 수신된 당일 전남도가 '사실상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즉각 회신한 데 있다.

당시 전남도는 한난에 '우리 도는 귀 공사



열병합발전소

에서 추진 중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생활 폐기물 고형연료를 활용한 집단에너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상기의 업무협약의 서 내용을 이행 및 준수해 조속한 시일 내에 동 사업이 정상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공문을 회신했다.

이후 해당 공문 내용을 놓고 한난은 '동의했다'로 해석한 반면, 전남도와 나주시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최대 법무법인 김앤장과 나주시가 선임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인은 '동의한 것'으로 해석했고, 이후 나주시가 한난을 상대로 제기한 '열병합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 관할 법원인 광주지방법원 재판부에서도 '동의한 것'으로 유권 해석을 내림으로써 공문 해석을 놓고 벌여진 이견은 일단락 됐다.

선정기자 itsun74@gmail.com

문대통령, 김기영·이종석·이영진 신임 헌법재판관에 임명장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소 신임 재판관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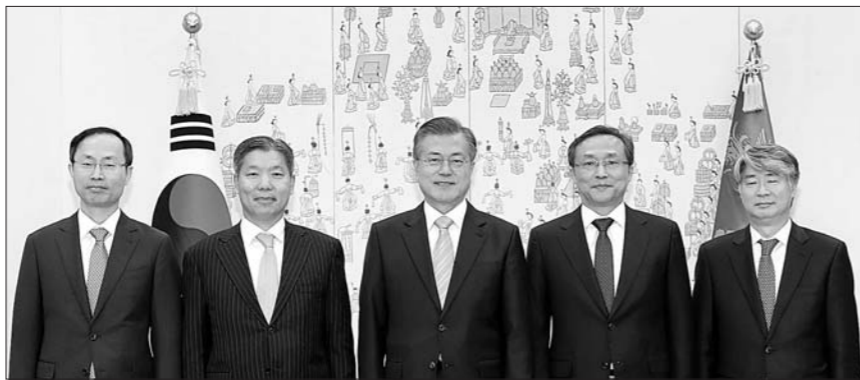
임명장 수여식은 오전 11시30분경 청와대 2층 접견실에서 열렸다. 수여식에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세 명의 신임 재판관, 각 배우자들이 참석했다. 청와대 측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김의겸 대변인, 김형연 법무비서관, 김종천 의전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배우자들에게는 꽃바구니를 증정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한 자리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이들 후보자를 임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9일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 5명이 동시 퇴임한 이후 지속됐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한 달여 만에 해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신임 헌법재판관은 정통 판사 출신이다. 32회 사법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유남석 헌재소장, 신임 헌법재판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영, 이영진 헌법재판관, 문 대통령, 유남석 헌재소장, 이종석 헌법재판관.

험에 합격해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하고 1996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 생활을 해왔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관은 30여 년 판사 생활동안 법리와 원칙에 충실한 재판을 해왔다는 평가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9년 인천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대구지법·수원지법·서울중

양지법·대전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재판 업무 경험으로 재판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영진 신임 헌법재판관은 재판 실무와 기획, 행정, 학술 분야에 두루 능통한 인물로 평가 받는다. 32회 사법시험을 나와 1989년 인천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대구지법·수원지법·서울중

"재외동포·한상 활동 뒷받침 하겠다"

문대통령, 제 17차 한상대회 참석 관련 기업인 격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서 열린 '제17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식'에 참석해 세계 각국에서 참석한 한상(韓商)들과 국내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세계한상대회는 재외 동포사회와 모국간 최대 비즈니스 연계의 장으로 불리는 '하나된 한상, 함께 여는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한상 800명, 국내기업인 450명 등 1천30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유대상인과 중국의 '화상', 인도 출신 '인상'을 세계 3대 상인으로 꼽는다"며 "저는 우리 '한상'이야말로 이들을 뛰어넘어 세계 경제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재외동포정책을 발전시키고 한인기업의 결속을 위해 더 노력한다

면 한민족이라는 강한 유대감을 가진 우리 '한상'들이 우리 경제에도, 세계 경제에도 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상 여러분이 활동하기 좋도록 정부가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며 "하나된 한상"으로 동포 경제인 네트워크가 한층 더 견고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02년 28개국, 968명으로 출발했던 세계한상대회가 어느덧 60여개국 5천여명이 참석하는 한민족 최대 비즈니스의 장으로 성장했다"며 "갈수록 발전하는 세계한상대회를 통해 동포 경제인들의 활약이 세계 속에서 더욱 빛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포 경제인들의 성공은 해외 진출을 꿈꾸는 많은 국내 기업인들과 청년들에게 큰 영감과 용기를 주고 있다"며 "한

국기업과 청년들의 해외진출은 세계 속에서 우리의 역량을 발휘하는 길이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동포 경제인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한상대회를 마치고 회장단과 각 지역 대표자들을 청와대에서 만났을 때만 해도 남북관계는 전쟁을 걱정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고, 평창올림픽도 성공적 개최를 장담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여건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1년 전에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던 일이 기적과 같은 변화로 현실이 됐고, 다시없을 소중한 기회가 우리 한민족과 기업인들에게 주어졌다"고 강조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hanmail.net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5주년

무등산이 올해로 국립공원으로 지정 5주년을 맞는다. 광주시는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5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연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일 오후 3시30분 무등산 중심지구 잔디광장 일원에서 국립공원 지정 5주년 기념 '무등산 숲 속 문화콘서트'를 연다. 이날 행사는 국립공원 가을 주간과 단풍 성수기를 맞아 음악콘서트와 등 타레를 펼친다. 한편 무등산의 가을 첫 단풍은 오는 20일 시작될 전망이다. (문의: 070-8000@hanmail.net)

10월 기념행사: 10월 23일 2:30-4:00, 10월 24일 10:00-11:00, 10월 25일 18:00-19:00, 10월 26일 28:00-29:00

기획·연·재·물 | ① 인문지행의 세상읽기 - 영웅의 허상을 깨닫는 것이 곧 성장하는 것 ② 최명준의 예술거울과 미학콘서트 - 소크라테스와 잡스의 점심식사

www.mdart.co.kr

"이제 카드 하나로 마음 놓고 여행 즐기세요"

NAMPASS

광주·전남 통합 관광 할인카드 '남도패스' 발매

광주·전남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숙박과 교통, 관광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주는 '남도패스'가 발행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0월 중순부터 광주·전남 통합 관광 할인카드인 '남도패스' 카드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

나주 금성관·강진 고려청자박물관 가을 관광지 선정

전남도가 10월 역사·문화와 함께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관광지로서 나주 금성관과 강진 고려청자 박물관을 선정·발표했다. 이중 나주목의 중심이었던 금성관은 조선시대 객사(관청 건물)로서 고을 수령과 관리들이 모여 충성을 바치던 곳이다.

인·터·뷰 유순미 미국 매사추세츠 예술대 교수

미국 매사추세츠 예술대 유순미 교수의 에세이 다큐멘터리 '북녘에서 온 노래'가 지난 2014년 선을 보이자 이듬해 로카르노 국제영화제 등 국내외 언론들의 취재가 잇따랐다. 작품에 관한 이야기와 사연을 들었다.

도시樂 야경 보러다니기 딱 좋은 명소 1번지

아름다운 야경,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도시는 그야말로 낭만 그 자체다. 지친 일상을 위로받는 또 다른 하루를 반추하기 좋은 광주의 아름다운 야경 명소 3곳을 엄선해 소개한다.

구독료(1부) 2,000원 ■ 1년 정기구독료 50,000원 ■ 구독문의 062-606-7776 ■ 기사제보 062-606-7737 ■ 광고문의 062-606-7772